

2022년 08월 1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72편 1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5장 17~27절(구약p.765)

17.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 네가 허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2.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23.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24.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25.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26.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27.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 말씀선포 / 잘못된 조언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며 권면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할 때 성도는 삼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적, 객관적, 존재론적 언어로, “레마”는 현상적, 주관적, 체험론적 언어로 굳이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로고스는 논리에 어원을 두며, 레마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말씀하심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진 십계명과 같이 글로 새겨져 모든 사람들을 향해 펼쳐져 적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면, 레마는 그 로고스가 생명력을

가지고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나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이를 들은 개인이 직접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개인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 욥에게 조언합니다. 그의 조언은 욥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엘리바스의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이지,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는 “로고스”의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의 신중하지 못한 연행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성급한 조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라는 말입니다.

-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계속 조언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욥을 훈련하시고 교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엘리바스의 이 말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6절에서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며, 만일 징계나 책망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고통당하는 욥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의 고통받는 원인을 너무도 쉽게 단정해 버리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죄와 미숙함을 훈련 시키고,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때로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같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 처럼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열사와 천대를 당하셨고,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을 쉽게 판단하여, 조언하는 일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조언으로 고난과 고통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옳은 행동을 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 우리는 모두는 불완전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조언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지금의 사정을 털어놓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애곡하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 역시 설불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된 “레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따르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욥의 가족들이 다시 번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이 사라져 버린 욥에게, 그의 장막이 안전해지고, 그가 많은 자녀를 얻게 되리라는 말들은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며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언하는 이의 의도가 선해도,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위를 바르게 교정해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왜 우

리에게 이 같은 편협한 생각이 고착되어 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즉 로고스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다른 자들을 똑같이 판단하고 평가하며 모두가 같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너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것은 옳고 너의 것은 틀리기에 내 것만이 참 진리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진 것이라도 다른 자들에게 전달하며 조언할 때 선불리 하지 말고 더욱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근거로 조언하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받은 것이 옳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모두는 예수의 한 몸이요, 지체이며,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은혜를 받고, 다르게 반응하며,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말씀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실수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언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르게 고쳐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고 조심히 행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에 참된 동역자요, 위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86(통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폐 회 / 주기도문